

열왕기하 개관

1. 개요

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이 각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, 말씀을 무시하며, 그 결과로 망국의 길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.

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, 남은 자를 지키시고, 회복의 희망을 남기십니다.

2. 저작 연대

- 기원전 561 년 이후, 여호야킨이 바벨론에서 석방된 사건(왕하 25:27-30)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기 때문에, 대략 기원전 550 년경, 바벨론 포로기 중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.
 -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,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.
-

3. 저자

-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, 정확한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
 -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익명의 편집자(들)가 열왕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비추어 평가하며 재구성한 신학적 역사로 봅니다.
-

4. 기록 목적

- 열왕기상·하 전체를 통틀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: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 축복하고,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언약 신학의 원칙을, 역사의 실재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.
- 동시에, 말씀에 순종한 자들—선지자들과 남은 자들—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희망의 끈도 붙들게 합니다.

5. 단락 구분

구분	본문
1-8장	엘리사 시대: 엘리야 승천 후, 엘리사의 이적과 사역 (기근, 치유, 나아만, 죽은 자 부활 등)
9-17장	북이스라엘 왕국의 몰락: 여러 왕들의 악행 → 앗수르에 의해 멸망 (17장)
18-20장	히스기야 왕과 앗수르의 위협: 신앙으로 기도함 → 예루살렘 구원받음
21-23장	므낏세-요시야 시대: 극단적 타락 vs 말씀의 개혁 (요시야의 종교개혁)
24-25장	유다의 멸망: 바벨론 침공, 성전 파괴, 백성 포로됨 → 여호야킨 석방으로 끝

6. 중심 메시지

“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... 앗수르에 사로잡혀갔더라.” (왕하 17:23)

“여호와께서 아직도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셨더라.” (25:27-30, 의역)

- 열왕기하는 역사의 슬픈 결말처럼 보이지만,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,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.
-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만, 언약을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.

7. 신학적 이슈

① 선지자의 사역과 권위

- 왕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, 하나님은 엘리야-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하십니다.
- 이들의 사역은 기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회복에 대한 계시적 증거입니다.

② 남은 자 신학

-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,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(왕상 19:18 참고). → 열왕기하는 완전한 멸망 가운데 남은 자 신학의 희망을 강조합니다.

③ 요시야의 종교개혁

-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, 하나님의 진노를 일시적으로라도 멈춘 개혁은 “말씀 중심의 회복 운동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.

④ 말씀의 확실성과 불가피성

- 열왕기하는 반복적으로 “여호와와 말씀대로...”라는 구절을 강조합니다. →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,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.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열왕기하 해석

① 신명기 언약에 근거한 역사 해석

- 열왕기하는 역사의 흐름을 ‘언약의 성취/배신’이라는 틀에서 해석합니다. → 이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대표적 역사적 사례입니다.

② 말씀 중심의 신앙 평가

- 왕들의 통치는 정치적 성공 여부가 아니라,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평가됩니다. → 이는 개혁주의의 말씀 중심 교회관과 동일한 원리입니다.

③ 선지자 사역과 설교 중심 사역

- 엘리사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,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중심입니다.
→ 이는 오늘날 설교를 통한 교회의 개혁과 회복의 본질을 상징합니다.

④ 남은 자와 은혜의 신학

-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'여호야긴'을 포로 중에 은혜로 석방하심으로,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.
- 개혁주의는 총체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강조합니다.